



# 대구서 31번 확진...감염원 '오리무중'

청정지역 영남권 첫 코로나19 환자, 해외여행력 없어  
한방병원·호텔뷔페·종교행사 다녀와...감염원 어디



18일 대구에서 신종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64세 여성 환자를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로 이송해 격리 치료 중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총 감염자 수는 31명으로 늘었다.

처음으로 영남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내 감염 발생지역이 전국단위로 퍼지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충청과 강원, 제주에서만 환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부분 서울(10명)과 경기권(13명), 호남(4명)에 몰려있다.

1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1번 환자(61·여)는 한국인으로 해외여행력이 없다고 보건당국에 진술했다. 31번 환자는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됐다. 현재 대구의료원에 격리 입원 중이다.

여기에 31번 환자는 감염원도 확인되지 않아 지역사회 전파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대구시가 발표한 이 환자의 동선을 살펴보면 31번 환자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기 전 대구 수성구 새로운한방병원에 입원했으며, 호텔 뷔페식당과 종교 행사 등에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31번 환자는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에서도 감염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 29번 환자(82·남)와 부인 30번 환자(68·여)에 이은 세 번째 감염경로 추정 불가 환자가 된다. 감염경로 규명에 오랜시간이 걸릴수록 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신속히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역학조사 결과를 오후 2시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누적 확진자(의심)환자 수는 9234명, 검사 중인 사람은 957명으로 조사됐다.

## 영남권으로 동진...코로나19 '충청·강원·제주' 안심못해

확진자 연령대는 50·30·40·60대 순

男16명·女15명...한국인 25명·중국인 6명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영남권 첫 환자라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수도권과 호남에 집중됐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영남권으로 동진(東進)하며 전국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18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27명(중국인 1번 환자·생활시설 입소 우한교민 13·24번원자 제외) 중 13명(46.4%)이 경기도 주민이었다. 이어 서울 10명(35.7%), 호남 4명(14.3%), 영남 1명(3.6%) 순이었다.

경기는 평택과 고양, 부천, 수원 등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호남은 광주와 나주, 군산 등의 지역에서 확진환자가 보고됐다. 영남에서도 이날 대구 지역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반면 충청, 강원, 제주 지역에는 아직 확진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대구에서 보고된 31번 환

자(61·여)는 한국 국적이며 해외여행력이 없다고 진술했다.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검사한 후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대구의료원에 격리됐다.

31번 환자를 포함한 확진자 연령대는 50대가 8명(2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7명(22.6%), 40대 6명(19.4%), 20대 5명(16.1%), 60대 3명(9.7%) 순으로 조사됐다. 70~80대는 각각 1명(3.2%)이다.

접촉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확진환자 연령대는 40대로 나타났다. 정부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40대 확진환자로부터 발생한 접촉자는 총 893명이다. 이는 전체 접촉자의 47.0%를 차지한다. 40대는 사회·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세대로 꼽힌다.

이어 30대 481명(25.3%), 50대 275명(14.5%), 80대 114명(6.0%), 60대 113명(6.0%), 70대 12명(0.6%), 20대 11명(0.6%) 순으로

집계됐다. 아직 조사중인 30번과 31번 환자는 접촉자 통계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사회 활동이 활발한 30~50대에 많은 접촉자가 발생한 반면 20대와 60~80대는 비교적 접촉자 수가 적은 특성이 나타났다.

확진환자 성별은 남성 16명(51.6%), 여성이 15명(48.4%)이었다. 확진환자 감염 지역은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2명, 일본과 태국이 각각 1명이다.

자세한 역학조사가 필요하지만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방문한 확진환자 수는 12명이다. 나머지는 국내에서 가족내감염, 병원내감염 사례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확진환자 국적은 한국 25명(80.6%), 중국 6명(19.4%)이었다.

국내 확진환자(퇴원 포함)가 이송된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이 각각 4명이었다. 이어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3명, 국군수도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전남대병원 각각 2명, 조선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각각 1명 순이다.

제주 中 관광객 하루 6명

'코로나19' 중국직항 완전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제주 무사중 제도가 일시 중단되면서 제주-중국 직항노선이 모두 끊겼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시 50분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한 중국 동방항공 MU500편을 끝으로 17일부터 제주와 중국을 잇는 모든 노선의 항공기 운항이 잠정 중단됐다. 제주-중국 항공기 노선이 완전히 끊긴 것은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 이래 처음이다.

지난 해에는 하루 평균 2000~3000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제주 무사중제도가 2월4일부터 일시 중단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방문이 급격하게 줄었다.

2월4~16일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605명으로, 전년 동기 3만4283명에 비해 95.3% 감소했다.

이처럼 제주 방문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항공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중국 직항노선 운항이 중단된 17일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6명으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